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미지근한 신앙에 머무는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한다면
부흥과 물질의 축복도 주시며 성도들에게도 합당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못 사용해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속히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 다시금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성전을 더럽히는데도 말로만 타이르려만 징계하지 않았습
니다. 아들들의 나쁜 행실은 계속됐고 결국
하나님 진노로 그들은 전쟁터에서 전사했습
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역시 의자
에서 넘어져 죽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히 12:6~8). 죄를 지었는데도 아
무런 책망이나 징계가 없다면 결국 '죄의 삯
은 사망'(롬 6:23)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껴야
하며, 징계를 통해서라도 사랑을 느끼는 사
람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 번, 두 번 징계를 받아도 아무런 깨달음
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이유가 없
므로 다음에는 잘못을 해도 징계조차 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어
가는데도 형통한 것처럼 보이며 징계도 없
다면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상태
이므로 이보다 더한 불행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사생자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
시고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징계가 당장에
는 무섭고 아플 수 있지만 이는 돌아키게 하
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 해서 꼭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 전에 말
씀으로 깨우쳐 주는 등 여러 방법으로 회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신속하게 깨닫고 돌아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 징계가 임한다 해도 그 역시 하
나님 사랑임을 깨달아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아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하늘나라에도 다시금 상
급을 쌓아가야 합니다.

4.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깊은 영적 잠에 빠졌지만, 이제
라도 주님 음성을 듣고 깨어날 것을 당부하
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문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은 진리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두드린
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담아 양식 삼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진리 말씀이 생각의 문으로 들어와야
하며 다음으로 마음의 문에 들어와야 합니
다.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차츰 말씀대로 지
켜 행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주님과 함
께 먹고 마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생각의 문으로 말씀을 받았
다 해도 정작 중요한 마음의 문을 열지 않
으면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적인 믿음 곧 행함이 따르
지 않는 죽은 믿음이며, 이런 믿음으로는 결
국 미지근한 신앙에 머무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다
해도 막상 행함으로써 마음에 일구지 못했

으니 영적인 믿음도 오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사
람의 마음 문을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그
것은 하나님 공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문을 강제로 열어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
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간 경작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우리나라는 마음으로 하
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참 자녀를 얻기 원하
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문과 마
음의 문을 자주 두드리시지만 그 문을 여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생각의 문은 물론, 마음의 문까
지 활짝 열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진리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 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마음 문을 열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지
켜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
은 이 세상과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
습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
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
라"(계 3:21) 말씀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

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처럼,
끝까지 이기는 사람 역시 구원받은 자리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 토하여 내치리라
는 엄중한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이
지만 지금이라도 마음 문을 열고 회개한다
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
니다.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
막 순간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
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
다. 예수님께서 가신 좁은 길을 변함없이 감
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갈 때만이 그분이 다
시 오실 때에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는 것 같다가도 중도에 포
기해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
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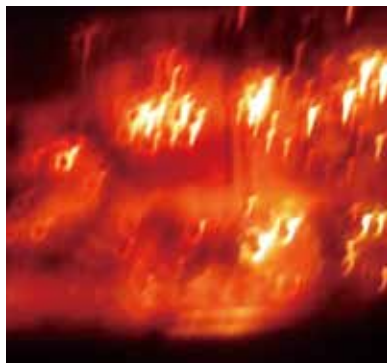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자
신의 신앙을 점검해 봄으로써 혹여라도 미지
근한 신앙에 젖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
하고 돌아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끝까지 이
기는 자의 대열에 동참해 더욱 힘써 천국을
침노함으로 주님 보좌 가까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신앙이 잠든 교회를 깨우시고
신부 단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사랑을 깨
달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
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
로 축원합니다.

Surprise!

성도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 속에 나타난 영의 세계의 여러 가지 형상을 찾아 보세요.

- 지옥(불못)
- 성령의 검
- 천사
- 주님



October 10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10월 주요 프로그램 안내

7 일
창립29주년 전야행사(생)
22:30-04:00

8 일
창립29주년 전야행사(제)
16:00-17:00 / 23:00-24:00

9 주일
창립29주년 분향사(생)
14:30-17:00
창립29주년 분향사(제)
23:00-24:00

8, 15, 22, 29 일
2011 기관성묘목(1-4)
11:00-14:00
10 ~ 27 매주 월-목
GCN TV성교(목과연1-식)
00:00-00:30

8, 15 일
GCN 독산영화 (웨바디시)
14:00-15:30 / 18:30-20:00
22, 29 일
GCN 독산영화 (왕중왕)
14:00-16:00 / 18:30-20:30

위성 및 인터넷TV 안내 1577-2073

GCN

*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